

## CTL 글쓰기교실의 현황과 전망

### 1. 설립 목적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은 2003년 5월에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의 계발 및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는 기존의 교육에서 두 가지 문제를 주목하였다. 첫째,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교육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계발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둘째, 기존의 교육은 생성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가진다. 글쓰기는 사고의 과정 및 의사소통의 과정을 동반한 복합적인 행위이며 글쓰기 능력은 학문 활동 및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서울대학교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가장 높은 단계인 글쓰기 능력에서 문제의 답을 찾았다.

### 2. 활동

글쓰기교실의 활동은 학생들의 글을 상담하는 상담 프로그램, 학생들이 올바른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진다.

#### 2-1 상담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은 방법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예약 상담이다. 학생들은 최소한 하루 전에 글쓰기교실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올리고 상담을 함께 할 연구조교와 시간을 예약한다. 담당 조교는 올려진 글을 읽고 자세한 코멘트를 단 후에 학생과 예약된 시간에 만나서 30분 동안 토론을 한다. 둘째,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메일로 글을 보내고 조교로부터 짧은 코멘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방문 상담이다. 글을 쓰는 어떤 과정이든지 학생은 글쓰기교실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연구조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의 대상은 학부학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과 외국인 학생들도 포함된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6명의 연구조교 및 연구원이 학부생 및 외국인 학생의 상담을 맡고 있다. 선임 연구원은 대학원생의 상담을 맡는다. 연구조교 및 연구원들은 방학 동안에 한 학기 상담의 결과를 분석·평가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상담을 준비한다. 학기마다 작성된 상담보고서는 글쓰기 교육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이다.

#### 2-2 교육 프로그램

글쓰기교실의 교육 프로그램은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와 글쓰기 및 토론에 관한 워크숍으로 구분된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학점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준성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는 매 학기마다 진행되는 교육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리포트 작성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리포트 작성을 위한 일반론과 분야별 리포트 작성을 위한 특강 과정으로 구성된다. 학위논문작성법 워크숍은 주로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구분되어 분야별 교수님들의 강연을 중심으로 매학기 진행된다. 외국인학생을 위한 학위논문 워크숍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학생들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방법과 한국어 사용에서 유의할 점을 배운다. 토론 워크숍은 논쟁 및 토론의 이론 및 방법을 배우고 모의 논쟁 및 토론을 통해서 배운 방법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 2-3 연구

글쓰기교실은 글쓰기에 관한 교과과정을 개발한다. 2004년에 대학의 요청에 따라서 글쓰기 전문 강좌인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과정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글쓰기 강좌(CTL Class) 개발하여 학생들 및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좌의 내용은 리포트 작성법, 대학국어, 과학기술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프레젠테이션 등을 포함한다. 글쓰기교실은 글쓰기 및 글쓰기 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의 연구를 기획한다. 교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물은 글쓰기 연구노트라는 소책자로 발간된다. 수사학, 글쓰기의 윤리, 인용법, 비판적 사고, 분과 학문에서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노트들이 발간되었다.

### 3. 평가와 전망

글쓰기교실은 2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상담, 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상담을 받는 학생들은 매 학기 증가하였고 여러 통계 지표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글쓰기교실의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이 글쓰기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들은 시간, 공간의 제약 때문에 예약 상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 이메일 및 당일 상담은 간단한 코멘트만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새로운 온라인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올리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상담 조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한 코멘트와 평가를 주는 것이다.

둘째, 보다 다양한 글쓰기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술적 글쓰기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코스워크 및 워크숍은 글쓰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전공 및 수준 그리고 관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 방법들이 필요하다. (1) 실습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수준별 차이 및 전공별 특성에 맞춘 글쓰기의 방법을 제공한다. (2) 학생들에게 분야별 글쓰기 코스워크, 수준별 글쓰기 코스워크, 사고력 계발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것을 함께 분석·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

셋째, 글쓰기 교수법에 관한 교육과정 및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한다. 앞으로 글쓰기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교수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없다.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글쓰기 및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주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발간 중인 글쓰기 연구노트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